

# 5차 광주폴리, 기후 위기 대응 친환경 ‘순환폴리’로

지난 201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광주폴리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모두 30여개가 들어서 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제 5차 폴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활용·재생 건축 자재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순환 폴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조성 장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와 양동시장이다.

이번 폴리는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개발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가장 많은 작품이 들어서 있는 국립문화전당 인근 폴리들과 결합하는 ‘광주폴리둘레길’ 프로젝트까지 복합적으로 진행, 기존 폴리까지도 함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8일 배행민 제5차 광주폴리 예술감독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작가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참여작가 중 한 팀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다국적 팀 어셈블 스튜디오+아틀리에 루마+비씨 아키텍츠 관계자 6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5차 폴리 참여 작가는 모두 4명(팀)이다. 눈에 띄는 인물은 2013년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8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열린 5차 광주폴리 설명회에는 배행민 감독과 참여작가인 비씨 아키텍츠 등 다국적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프리즈커상’ 이토 토요 등 참여작가 4팀 발표...ACC·양동시장 조성 ‘광주폴리둘레길 프로젝트’ 동시 추진... 10일 공공프로그램 진행

프리즈커상을 수상한 일본 작가 이토 토요다. 그는 광주폴리 둘레길 프로젝트와 결합해 동명동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30년간 목조건축을 기반으로 작업해온 조남호 건축가는 ‘숨쉬는 폴리’를 제작한다. 친환경적인 목조건축물로 조성되며 분해조립이 가능한 이동형으로 구성, 동명동을 거점 삼아 광주 전역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했다.

흥미로운 팀은 지난 2일 광주를 찾아 리서치 작업을 진행중인 다국적 팀이다. 2015년 터너상을 받은 영국의 어셈블 스튜디오(Assemble Studio), 농업 부산물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연구하는 프랑스 아틀리에 루마(Atelier Luma), 건설 폐기물을 건축현장에 활용하는 벨기에 브뤼셀의 건축 연구소 비씨 아키텍츠(BC Architects)로 수년 전부터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완도와 장성을 비롯해 폴리가 들어설 예정인 양동시장을 둘러보며 오는 12일까지 리서치를 이어간다. 광주-전남 자원을 기반으로 한 폴리 디자인을 계획중인 이들은 완도의 미역 등 해조류와 장성의 편백, 황토 등의 자원을 어떻게 건축자재로 개발해 활용할 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중이다.

그밖에 리서치 기반의 건축 작업을 지속해 온 전진홍, 최은희 2인 그룹 바레(BARE) 역시 양

동시장에서 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5차 폴리는 시민프로그램 기획, 친환경 재료 실험, 지역 공예 장인과 협업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6명 큐레이터도 합류했다. 이혜원(대진대 교수), 윤정원(서울시립대 교수), 차정욱(독립 큐레이터), 김그린(독립 큐레이터), 광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강동영((주)라움건축사무소 대표), 이영미((주)집합도시 대표) 등이다.

이번 폴리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 재료 및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축 시스템’과 시민이 참여하는 ‘음식 문화’를 결합시킨 게 특징이다. 특히 양동시장에서는 광주폴리와 우리 밀의 협업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배행민 감독은 지난해 마스터플랜이 나온 ‘광주폴리 둘레길 조성사업’도 함께 맡아 추진중이다. 기존 폴리를 널리 알리고 광주의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하는 한편 5차 폴리와 연계도 모색한다.

한편 10일(오후 2시 광주독립영화관)에는 배행민 감독과 어셈블 스튜디오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폴리 공공프로그램 ‘결과보다 과정: 건축물은 섬이 아니다’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완도에서 진행된 리서치 작업 모습.

## 새끼고양이에 먹이 주다 도둑으로 몰렸다

이미레 동화작가 ‘봉주르, 장발장’ 펴내

용서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빅토르 위고의 장편동화 ‘레 미제라블’과 연계해 흥미롭게 풀어낸 장편 동화가 출간됐다. 현직 교사인 이미레 동화작가가 펴낸 ‘봉주르, 장발장(현복스)은 제목이 말해주듯 ‘레 미제라블’과 절묘하게 엮어 창작한 작품이다.

책은 아기 길고양이를 돌보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작가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고전을 차용해 재미있게 그렸다. 저자가 ‘장발장’을 읽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다. “작고 얇은 동화책이었는데 집 뒤란에서 뒷자리를 깔고 앉드려 읽었던 기억”이 날 만큼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다.

“장발장은 길거리에서 본 거 같았고, 미리레 신부님은 내가 다니던 성당의 신부님 같았어요. 그땐 파란 눈의 외국 신부님이 많았답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덮고 하늘을 보았는데 파란 하늘에 봉실봉실 흰구름이 피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의 하늘과 구름의 색깔, 스치던 바람까지 느낌이 선명해요.”

이번 동화 또한 이전의 작품처럼 길고양이와 아이들을 모티브로 한다. 작가에 따르면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는 두 존재는 작



고 어려서 온전히 보호받아야 한다. 동화는 장발장이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에게는 장발장이라는 별명이 있다. 배고픈 새끼 고양이의 먹이를 주려 했는데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다. 장발장처럼 용서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작가는 주인공의 심리와 변화, 성장에 초점을 두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또한 선행이 칭찬과 찬사를 얻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있는가를 묻기도 한다.

한편 광주 출신인 이 작가는 광주교육대학교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창작집 ‘시계 수리점의 아기 고양이’와 장편동화 ‘앵앵이와 매암이’, ‘바다를 담은 그릇’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서양화가 민병각 탐화 여정 60년’

기증 작품 40점 전시...4월30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

‘화업 60년을 기리다.’

민병각 화백 기증 작품전이 오는 4월 30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에서 열린다. 전시 타이틀은 ‘서양화가 민병각 探畫 旅程(탐화 여정) 60년’ 전이다.

재전(在田) 민병각 화백은 충북 청주 출생으로 청주사범을 졸업한 후 중등학교 미술교사를 거쳐 고장 등으로 근무하며 화업을 이어갔다. 황조근정훈장, 서울미술상, 소해미술상 등을 수상한 민 화백은 한·일 미술교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국제미술위원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작품을 연대기 순으로 만날 수 있다. ‘1973년-1983년 서울에서의 향(鄕)에 담긴 관조의 세계’, ‘1983년-1998년 귀향선(歸港線)에 실은 심상의 세계’, ‘1998년-2017년 유적지(遺跡地)-흥중에 있는 주관적 내면의 의경(意境)’ 등이다.

출품된 40점은 전시가 끝난 후 작가의 기증 의사에 따라 남포미술관이 영구 소장한다.

김미은 미술평론가는 “구멍없는 순수한 자연의 얼굴인 심상적 풍경화를 바탕으로 한 구상작품과



민병각 작가의 작품

변화를 모색하는 추상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다양한 장르 전문가들 모여 ‘예술 실험’ 갖는다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장르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는 스튜디오몹(랩)이 운영되고 있어 화제다.

광주문화재단의 ‘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은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전환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예술실험이다. 모두 6개의 스튜디오몹(랩)이 펼치는 일종의 ‘모의 실험’이다. 장르별 44명 전문가가 3개월 연구한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연하는 것이다.

6개 랩주제는 다음과 같다. ‘요리와 이야기’, ‘시민걸음 탐구’,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광주를 놀이터로’, ‘광주안의 타자’, ‘시민행동을 예술프로젝트’로 그쳤다.

먼저 ‘요리와 이야기’는 지속가능한 음식을 모티브로 다양한 음식 실험을 하는 스튜디오몹이다. 8명은 미학 전문가, 농부, 퍼포먼스 기획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예술실험 ‘쌀-밥 짓기, 1단계 눈만들기’는 구들장 눈을 직접 만드는 작업이다. ‘구들장 눈’은 완도 청산동에서 적은 물을 이용해 벼농사를 지었던 벼 수확 방식.

오프라인 전시는 전주 사용자공유공간 PLAN C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프식은 13일 오후 1시. 온라인 전시는 13일 플랫폼 ‘컬이븐’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의 시선을 연구하는 모임. 참여자 8명 작업은 문화기획자, 교사, 작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예술실험 ‘다른 생명체 되어보기’는 광주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소재로 하는 ‘시시각각(市視各覺) 카드놀이 워크숍’이다.

‘시시각각(市視各覺)’은 개인이 보는 눈을 뜻하는데 ‘눈’은 사람의 시선 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도 의미한다. 카드놀이 워크

##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랩지원사업’ 2월 말까지 진행 ‘요리와 이야기’ ‘시민걸음 탐구’ ‘광주안의 타자’ 등 6개 주제



‘쌀-밥 짓기’

숍은 광주전년 등 잘 알지 못하는 생명체에 대해 조사해 ‘생명체 목록’을 만들고, 카드 26개정도로 제작했다.

9일 오후 2시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며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생명체에 관심 있는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하다.

‘광주를 놀이터로’는 일상의 공간 중 놀이터를 재발견하는 스튜디오몹. 예술가, 조각가, 작곡가,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예술실험 ‘나나노(나랑 나랑 노을자)’는 놀이실험과 물건놀이



세계의 눈으로 본 광주 인터뷰 진행 장면

(사물의 재발견)을 컨셉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자리다.

‘나나노’ 참여자는 놀이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9일 오후 1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홀로그램극장에서 진행된다.

한편 창의랩 사업은 지난 11월부터 오는 2월말까지 진행되며 16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결과보고회를 갖는다. 문의 062-670-745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김소연 가야금 ‘산조’ 이탈리아에 흐르다

피렌체 프란코 제피넬리 기념관서 독주회

김소연(사진) 가야금 독주회 ‘산조’가 8일 오후 6시 이탈리아 피렌체 프란코 제피넬리 기념관에서 열렸다.

가연하며 가야금 연주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일본 오사카에서 가야금 독주 공연을 펼친 뒤 이후로도 중국 하얼빈, 일본 교토, 이탈리아 피렌체, 로마 등 외국을 찾아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현재는 (사)가야금산조진흥회와 (사)예가회의 회원으로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 전통 민속음악을 대표하는 ‘산조’를 주제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선보였다. 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남도 음악의 중심인 한을 뛰어넘는 뜻깊고 강인한 선율의 특징을 갖고 있다. 김소연 가야금 연주자는 “세계인들이 이번 연주회로 우리 민족의 세계관과 사상, 철학을 느꼈으면 한다. 이번 무대를 계기로 가야금의 예술적 표현 범위가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